

세계의 문화를 우리 손으로 한 곳에서!



▲9월 29일 한강 물빛공원에서 열린 23회 세민전 공연모습.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학회 플라멩고가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서 주최하는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이 9월 29일 한강 여의도공원 물빛무대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열리는 이 행사는 글로벌배움터의 대표적인 축제로 올해 23회를 맞았다. 세민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우리학교의 특성을 한껏 살려 문화공연 및 행사를 선보였다.

오전 11시부터는 각 과 부스에서 전공의 특징을 살린 △루마니아어과 조각품 전시 △인도학과 헨나 △각국 전통의상 체험 △아프리카학부 접술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부대행사를 즐길 강지혜(통번역·스페인 13) 양은 “외국어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나라의 문화를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현환 글로벌배움터 부총장은 “단언컨대 세민전은 우리학교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며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그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전형근(통번역·영어 08)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세민전은 외대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축제인 만큼 세계와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환(국제지역·인도어 10) 세민전 준비위원회장은 “세민전은 역사나 내용의 차별성만으로도 충분히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향후 국내 유일의 세계민속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본 공연에서는 루마니아어과, 체코 슬로바키아어과, 헝가리어과 등 동유럽 대학, 인도학과, 아프리카학부, 프랑스학과 등 국제지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독일어통번역학과 등 통번역대학의 총 17개 팀이 참가했다. 230여 명의 학회 소속 재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각국 전통 공연을

선보였다. 그 중 큰 함성과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던 아프리카학부 학회 ‘트림보’의 최은지(국제지역·아프리카 11) 학회장은 “매일 4시간의 연습으로 힘들었지만 오늘 공연 후 ‘역시 트림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벅찬 감정을 전했다. 또한 열린 무대에서 진행된 축제인지를 가늠할 수 많은 시민들의 발길도 붙잡았다. 공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한 허현(19) 양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해에 다시 와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세민전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던 것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데는 열심히 준비한 여러 재학생들의 열정과 세민전 준비위원회원들의 땀이 있었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외국어전문 공군인력양성을 위한 MOU체결

우리학교는 9월 10일 성일한 공군참모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공군과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다음 해부터 국제화라는 우리학교의 특성에 걸맞는 공군 어학 장학생을 배출하게 된다. 기존의 공군조종장학생 제도에서 외대의 특수성을 살린 공군어학장학생이 추가된 내용이다.

공군 측의 선발기준에 따라 어문계역에서 정원 10명의 1.5배수를 선발하고 1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한다. 최대 4년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졸업 후에는 훈련과정을 거쳐 공군 장교로 임관해 장학금 수혜를 받은 기간만큼 추가 복무해야 한다.

특히 휴학 및 해외연수가 제한되는 다른 군장학제도와 달리 공군장학생의 경우 공군 측의 동의 아래 휴학과 1년 이하의 해외연수 등 학적변동이 가능하다. 장학생에게는 군 간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공군 장병들에게는 우리학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시험인 FLEX의 응시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유지기준은 매학기 성적 70%이상



▲우리학교와 공군의 MOU체결 현장. 많은 공군 관계자들과 교내 주요인물들이 참가했다.

평점 4.5기준 3.15이상)이어야하며 8학기까지 700점 이상의 TOEIC 점수가 요구된다. 영어성적은 TOEIC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TOEFL이나 TEPS로 대체 가능하다. 특수어과를 위한 별도의 언어평가대체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성적기준이 미달돼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협약식에서 박철 총장은 “우리학교

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활용한 글로벌 세계일류 공군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일한 공군참모총장 역시 “외국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과 대학기관이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우리학교 QS 대학평가서 국내 사립대학 8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우수 사례 선정

‘2013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세계 431-440위권에 올라 국내 사립대학 중 8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3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의과대학 없는 대규모 종합대학 국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우리학교는 △교수 당 학생 수 △외국인 교수 비율 △졸업생 평판도에서 세계 200위권 안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하는 ‘세계대학평가’는 2004년 처음 발표된 이후 올해 10년째로 현재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학 평가 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는 전 세계 3000여 개의 대학을 △학계 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교수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비율 △외국인 교수비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했다.

우리학교는 지난 8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위원회에서 ‘2013년도 본분교 통합 대학기관평가에서 인증받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는 교육부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충하여 대학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각 대학이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난 2011년 도입한 평가제도다. 총 6개 영역 17개 부문

54개 준거로 평가되며 이번 인증은 9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러한 평가에는 지난 9월 23일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학과별 교수연구력평가에서 우리학교 사학과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역할도 크다. 더불어 국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단계별 특성화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우수 사례 대학으로도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우리학교가 2014학년도 본분교 통합 출범을 앞두고 본분교 통합 대학기관평가를 통해 공인인증 결과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또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로 선정됨으로써 ‘2013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국제화 부문 국내대학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또 다시 우리학교의 국제화분야 강세를 확인시켰다.

윤경욱 평가감사팀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세계대학평가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우리학교가 노력한 것을 인정받았 기쁘다”며 “국제화 부문에서 계속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은 학교의 꾸준한 노력과 전 세계 어딜 가도 뒤처지지 않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 그리고 외대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로 전가, 문제는?

지난 해 우리학교는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인 33억 원 중 21억 원을 교비로 대납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지난 7월 열린 정기학생총회에서 사학연금대납 및 재단적립금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봉현(사법·영교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학교에서 법인전입금 83억 원을 받아야 함에도 46억 밖에 수령하지 못해 사학연금 중 21억을 등록금으로 대납했다”며 “등록금과 재단의 적립금은 학생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또한 법인의 법정부담금 대납 전가에 대해 동원육영회 이사장의 공식입장표명을 요청했다.

한편 문제성 교육부 사립대학제도

과 주무관은 “현재 대학들의 2012년도 사학연금 교비대납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 내용과 결산서를 검토 중”이며 “결과 분석이 끝난 후 학교들에 대한 조치를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직원 사학연금은 △교직원 개개인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50%)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30%) △국가부담금(2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법인부담금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는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2년 1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설치했다.

우리학교는 교육부 장관 사전 승인이 시정되기 이전부터 재정이 부족한 법인의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에서 충당했다.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거두는 법정부담금이기에 때문에 법인에서 미납하면 교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면 교육부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학교 재정 또한 악화시킨다. 2012년 당시 우리학교 법인은 사학연금을 부담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법인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권고 받았다. 표상용 법인사무처장은 “교육부에서는 법인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마련된 적립금 40억 원에 대해 사학연금 33억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현재 교육부에 이를 해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가에서 학교법인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학연금을 부담시킨 결과다. 또, 다음 해부터는 사학연금 중 국가부담금(20%→0%)이 없게 되고 법인 부담금(30%→50%)이 증가할 예정이어서 교비 전가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상당부분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 지면안내
- 2 동아리 허브더카페 장학금기부
- 4 총장선거 시작을 알린다
- 6 결핵 조심하세요
- 7 우리학교, 가려진 땅을 찾아
- 12 국제스포츠 경기 뒷이야기 그 중심에 윤강로가 있다



학내 브리핑

‘허브 더 카페’, 장학금 천만원 기부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들에 해외수학 기회 주고자

총장 배 토론대회 참여하세요!

제 6회 총장 배 토론대회 예선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투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에세이를 글로벌배움터 철학과 사무실 또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hufsdebate>로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철학과에서 운영했던 총장 배 토론대회를 이번 해에는 사학과와 언어인지학과가 함께 개최했다. 또한 외부 홍보 채널로 인터넷 서점인 ‘Yes24’와 공동주관해 Yes24의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제학사 318호에 위치한 ‘베브릿지(beBridge)’. 교내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세계음료 전문점으로, 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2012년 1학기 국제학사 3층의 조그만 동아리방에서부터 시작했다. 공정무역 커피를 파는 ‘착한 카페’를 내걸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걸음을 떤 작은 카페가 어느새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카페로 거듭나 1,0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기부하기에 이르렀다.

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기부문화의 습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혁 서울배움터 학생감독팀 교외장학 담당직원은 “우리학교에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기부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카페를 열 때부터 장학금을 마련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침내 목표를 성취해 학교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교공간을 학업 외에 잘 활용하는 것도 대학생의 특권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페 샷이나 학점 관리에 매진하느라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기가 쉽지 않다”며 “이렇게 창의적이고 실천력 있는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현재 허브 더 카페의 부원들 중 일부는 함께 뜻을 모아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현우 군은 “이전에는 동아리 차원의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창업을 위한 벤처 인큐베이팅 단계로 크게 확장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확장돼 다른 대학에 입점하게 된다면 더욱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게가 있는 모든 학교에서 장학금을 조성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유학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진로개발 세미나(2) 온라인 강의 잊지마세요

글로벌배움터 경력개발센터에서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다. 강의대상은 2013학년도 2학기 ‘진로개발세미나(2)’ 수강생 전원이다. 취업진로 진단검사 및 동영상 강의를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에서 F학점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란 참조하면 된다.

교내 창업동아리 HUVE(허브)에서 운영하는 세계음료전문점 ‘허브 더 카페(현 베브릿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해외수학의 꿈을 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천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허브 더 카페는 우리학교의 글로벌 이미지를 살린 세계음료전문점으로,

허브 더 카페가 장학기금을 조성하게 된 배경에는 부원들의 ‘착한’ 경영철학이 담겨있다. 허브의 회장인 조현우(동양어·이란어 08) 군은 “대학생들이 창업활동을 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이 돈이 대학생에게 쓰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항상 남을 돕는 기

‘뺑차’ 하염없이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공식 커뮤니티 웹사이트인 HUFStory가 △총학생회소식 △학사정보 △취업정보 △장학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됐다. 이어 9월 12일부터 그 기능에 교내 셔틀버스(뺑차) 위치안내 서비스가 추가돼 교내에서 학생들이 뺑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다소 해결해 주고 있다. HUFStory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구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외대 생활 노하우를 공유하세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10월 말까지 ‘외대생활 백서 기사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서로 우리학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작성해 총학생회 홈페이지(www.hufstudent.co.kr) 복지사업란에 외대생활백서 게시판으로 접수하면 된다. 1등으로 선정된 1명에게는 문화상품권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제 19대 국회에 진출한 이석기 동문(중국어통번역 82)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달 26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월 130여명의 조직원과 내란을 음모, 선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현재 이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조사 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현재 변호인단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11일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봉현(사법·영국 09)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건의 사안자체가 중대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이석기 의원 및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편 이번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여론조작 의혹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합리적이며 이에 대해 인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현오(경영·경영 12)군은 “총학생회의 발표문 내용에 동의한다”며 “동문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이 더욱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도 현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공유한 상태다. 전형근(통번역·영어 08)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학생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력한 검찰 수사 및 수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으나 정치적인 사안인 만큼 총학생회에서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공판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기일을 14일로 정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번역에 학문적인 접근 시도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신설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에 영어번역학과가 신설됐다. 번역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교육을 통해 국내외 번역학 연구를 선도할 학자 양성이 학과의 목표다. 영어번역학과는 서울배움터 영어대학과 글로벌배움터 영어통번역학부의 교수진으로 꾸려져 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전공분야의 학문영역을 융합·교육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기초이론 △연구방법론 △문학/문화 번역 △번역교육으로 나뉘어 있으며, 외국인 교수의 수업도 병행하는 등 번역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발전해 각광받고 있는 번역학을 우리학교에서도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한편 지난 해 영어번역학과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통번역대학원과 차별성 문제로 통번역대학원에서 번역학과 신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규호(통번역·한중 12) 전 통번역대학원회 부회장은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이 학과 중북

설치를 우려하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학교 측에 입장서를 전달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었다”며 “시위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표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성은 영어번역학과 주임교수는 “통번역대학원은 국제회의 등에서 활동할 통역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이기에 실습 위주의 과정인 반면 일반대학원의 영어번역학과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번역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학문 위주의 과정으로 연구인력 양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어번역학과는 2014학년도 전기 석·박사과정을 모집하고 있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두 전형으로 모집하며, 특정한 일정은 일반대학원 입학처로 문의하면 된다. 다양한 교내외 장학 혜택도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성은 주임교수는 “우리학교에서 번역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훌륭한 번역학자가 많이 양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2014학년도 전기 (특별&일반)전형 신입생 모집

글로벌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특징

- 신입생 입학장학금(성적에 따른 차등 지급)
- 성적 장학금(재학생 80%)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학과별, 학기별 선발 지급)
- 한국학과 외국인 장학금
- 포스코 장학금
- 외부 기관 장학금(KIEP-GPAS, KOGAS 등)
- 본교출신조교 장학금 제도
- 3+1제도(재학생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13.10.14(월)~10.18(금)	13.11.18(월)~11.22(금)
면접일	13.11.06(토)	13.12.07(토)

◆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2434 / FAX : 02)2173-3369
E-Mail : hufsgsias@hufs.ac.kr / Website : <http://gisias.hufs.ac.kr>

2014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요강

글로벌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석사학위과정 <http://gse.hufs.ac.kr/>

▷ 입학문의 : 대학원교학처 사무2팀 교육대학원 TEL. 02)2173-2419~2421 FAX 02)2173-3358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1. 전형 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인터넷 작성	2013. 10. 21(월) 14:00 ~ 10. 25(금) 22:00	www.uwayapply.com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 작성 가능
서류 제출	2013. 10. 21(월) 14:00 ~ 10. 25(금) 22:00	교육대학원 (대학원 건물 111호)	우편 제출의 경우 10. 25(금)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면접 전형	2013. 11. 9(토)	대학원건물 고사장	전공별 면접시간 11:00~14:00 교육대학원홈페이지 인사뉴스에 공지예정
합격자 발표	2013. 11. 21(목) 14:00 예정	gse.hufs.ac.kr	
합격자 등록	2013. 11. 25(월)~11. 29(금) 예정	우리은행 전국 지점	은행업무시간 내 인터넷뱅킹, 문맹팅 가능

* 제출서류접수시간 : 근무시간 14:00~22:00 (토, 일 공휴일 휴무)
* 지원자 전원 면접전형에 응시하여야 함

제출서류 130-791
보낼 곳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교학처 사무2팀 교육대학원

◆ 2.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 과정	모집 전공	모집인원
교육학사	· 국어교육 · 영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스페인어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상담심리 · 유아교육 · 수학교육 · 컴퓨터교육 · 교육경영리더십 · 다문화교육 · 어린이영어교육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명

* 교육경영리더십, 다문화교육, 어린이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전공은 재교육 과정만 운영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 함

800명의 학우 모여 밝힌 잔디광장

서울배움터 학생총회 2년 만에 성사



▲2년 만에 서울배움터 정총이 성사됐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800여 학우들이 잔디광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2011년 10월 26일 성사된 비상학생총회 이후 약 2년 만에 서울배움터 정기학생총회(이하 정총)가 성사됐다. 당초 오바마홀로 예정됐던 장소가 전날 잔디광장으로 변경됐음에도 개의정족수 791명을 넘긴 818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총학생회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팅 빈 잔디광장에서 정기총회를 한다'며 '이번 총회로 잔디광장이 노천극장을 대신해 우리들의 의견을 말하는 우리들의 공간이라는 확신을 보여주자'며 참여를 호소했다. 정총 당일 가로등 조명에 의지한 채 총회가 진행됐지만 800여명 학생들은 뜨거운 성원을 보내며 회의에 임했다. 이양현(일본·일본 13) 양은 "좀 더 쾌적한 오바마홀이 아닌 잔디광장에서 정총을 여는 것이 의미했지만 그만큼 학교현안에 심각성을 느끼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 △사학연금 대납 및 재단적립금 투자에 관한 성명서 채택 △나무 택 설치 등을 요구하는 '잔디광장' 성명서 채택 △총장 선출권을 학내 구성주체인 교수·학생·교직원 모두에 부여할 것 △L&D 학부 신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복학과의 권리를 보장할 것(커리큘럼결정 및 진행 상황 상세 공개 및 피해 예상 학과에 대한 대책 마련) △유사중복학과의 이

중전공제한 협의를 준수하고 수업권을 보장할 것 등 총 5개의 안건을 결의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재신임 총투표안건은 상정 당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표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캠퍼스 간 이중전공 제한'에 대한 안건이다. 지난 본분교통통합 실무위원회에서 양 배움터 처장단과 학생대표는 유사학과에 대한 이중전공제한을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10월 5일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에서 학제개편위원회를 발족해 '양 배움터에 유사중복학과들을 지정해 통합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색해지고 이중전공공포에 제한이 생겼다'는 내용의 입장서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학제개편위원회 규탄 및 해소 △학교본부의 이중전공제한 기준 협의안 교수 요구 △'캠퍼스 간 이중전공 개방 중단 요구' 성명서 채택 등 세부 사항을 결의했다. 조봉현(사범·영교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학과를 확실히 분리시켜 통합하지 않은 학교본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나 기존의 협의사항과 달리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글로벌배움터 학제개편위원회의 성명은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이중전공을 전면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동화, 과밀화 문제 등 양 배

움터가 겪을 피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의내용에 대해 박혜신(중국·중국 09) 양은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학교본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총을 마치고 조봉현 총학생회장은 "지난 상반기 정총에는 채 100명의 학생도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500백 명의 학생이 끝까지 남아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것을 첫발로 삼아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해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사진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우리학교 반병률 교수 36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선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던 우리학교 반병률 교수. 이에 9월 11일 무죄 선고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9호(이하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우리학교 반병률 교수가 9월 11일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었다.

지난 1977년 11월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반 교수는 '유신 철폐와 학원 민주화, 언론 자유' 등의 내용으로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려다 기소돼 1년 징역에 1년 교수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 헌법에 의해 1974년과 1975년 연이어 선포돼 반유신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이는 초헌법적인 권리로 국

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위헌적 조치들이다. 반 교수가 기소됐던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학교당국의 허가없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의 '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위헌·무효 판결이 토대가 됐다. 같은 재판에서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의 저자인 실천문학사 김영현 대표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 교수는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36년은 일제강점기와 비슷하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민주화를 위해 몸 바친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일생동안 많은 피해를 본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정의와 진실은 승리한다'는 역사적 징표를 보여주었다"며 "사학과의 교수로서 선례가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양 배움터 도서관 정독상, 다독상 시상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는 다독상과 정독상, 글로벌배움터에서는 다독상 시상식을 가졌다. 다독상은 지난 학기 대출 횟수를 기준으로 선정되고 정독상은 도서관에서 설정한 4권의 책 중 한 권에 대한 독후감 모임을 통해 선정됐다.

9월 30일 서울배움터 도서관장에서 정독상 및 다독상 시상식에서 다독상 수상자로 1등부터 정민웅(서양어·스칸어 11) 군, 김지혜(경영대학원·경영 12) 양, 정주리(서양어·프랑스어 10) 양, 김현영(영어·영통 13) 양, 류민국(영어·영문 10) 군, 이세영(국제 05) 군, 김용희(통번역대학원·한영 13) 군, 장성한(동양어·이란어 10) 양으로 모두 8명이다.

정독상을 수상한 장호준(영어·영문 08) 군은 "잘 쓴 것도 아닌데 열렬결어상을 받아 기분이 좋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오명근 도서관장은 모든 수상자에게 "많은 책을 읽고 좋은 글 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독서와 연구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배움터에서도 9월 26일 다독상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기존 수상자를 제외해 다독자 순으로 박윤범(공과·컴퓨터 07) 군, 이용준(공과·산업경영 08) 군, 김소영(동유럽·헝가리어 10) 양, 공성배(통번역·영어 99) 군, 이예슬(통번역·영어 09) 양, 허송희(동유럽·헝가리어 11) 양, 유예진(국제지역·중앙아시아 09) 양, 김성범(인문·언어인지 07) 군이다. 이들은 소정의 상

금과 상패를 전달받았다. 특히 다독상 수상자는 최대 대출한도를 7권에서 12권으로 증가되는 특혜를 얻는다.

수상자 공성배(통번역·영어 09) 군은 "지식은 물론,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허송희(동유럽·헝가리어 11) 양은 "우리학교에 오기 전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빠 책을 많이 읽었다"며 "책도 읽고 다독상도 받아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도 도서관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친구에게, 선배에게 책을 권유하자"고 전했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새로운 외대학보 이제 당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외대학보 88기 수습기자 및 외부집필진 모집

외대학보 수습기자 모집기간 : 2013년 10월 14일(월)~10월 31일(목)
외대학보 수습기자 지원자격 : 양 배움터 3학기 이하 재학생(2학년 1학기 재학생 이하)
수습기자 지원서 마감일 : 10월 31일(목)
수습기자 필기시험 및 면접일 : 11월 2일(토)
수습기자 합격자 발표일 : 11월 3일(일)

외대학보 외부집필진 지원자격 : 경력기자,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등 양 배움터 학생 누구나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email 제출 : jshep2013yj@gmail.com)

외부집필진 특전 : 장학금 또는 수당

수습기자 지원서 수령 및 제출
▶서울배움터 :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글로벌배움터 : 학생회관 212호 031-330-4112

문의사항 연락처 : 010-4002-0299 편집장 신민지

제 10대 총장후보선거 첫발 내디뎌

학교와 노조, 끊임없는 줄다리기

이번 11월 22일 우리학교를 이끌 차기 총장을 뽑기 위한 총장후보선거가 실시된다. 14일 입후보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된다.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에서 주관하는 우리학교 총장후보선거는 교수 직선제로, 선거권은 교협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교협의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 2명을 선출해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면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을 최종 선임한다.

교협은 지난 9월 4일 열린 평의회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초청토론회를 구성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업무를 주로 맡으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과 등록서류를 심사·접수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작성과 투표·개표 등 후보 선출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초청토론회는 총장후보 초청토론회를 준비·운영한다. 이번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협 회장인 박용구 교수가 맡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문환 교협 부회장이, 초청토론회위원회는 유달승 교협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9일 총장후보선거의 일정을 발표했다. 입후보자

9월 4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초청토론회위원회 구성
9월 9일	선거일정 공고
9월 14일	총장후보 입후보자 직무정지
10월 14일~16일	입후보자 등록기간
10월 17일	입후보자 확정 공고
10월 25일까지	정견발표 동영상 촬영 및 제작
10월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11월 1일까지	공약집 제출
11월 15일	제1차 투표
11월 19일	제1차 초청 토론회(글로벌)
11월 21일	제2차 초청 토론회(서울)
11월 22일	제2차 투표 및 결선 투표

▲올해 치러지는 제 10대 총장후보선거의 일정표다. 자세한 일정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이번 달 14일부터 1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11월 1일까지 공약집을 제출해야 한다. 1차 투표는 11월 15일에, 2차 투표 및 결선 투표는 11월 22일에 진행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9월 14일부터 총장, 부총장 및 처장급의 보직을 맡은 입후보자의 직무는 미리 정지되고 최종 선거일까지 대행체제로 업무를 진행한다.

이번 총장후보선거를 앞두고 교협은 8월 26일 총장후보선출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그동안 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했던 기탁금을 장학금으로 조성하는 등 총

장후보선거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박용구 교협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학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총장이 선출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총장후보선거의 선거권을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돼 7일 열린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학교 측의 단체교섭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은 노조의 대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해 교섭하는 과정이다.

이 결과 합의된 사항을 통해 근로에 관한 법규 및 입금을 정하게 된다. 우리학교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4년간 단 한 번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장백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이 노조 측 교섭대표로 참가했다. 학교 측에서는 김해룡 서울배움터 부총장이 교섭대표로 위임됐다.

6월 18일 있었던 이번 해 첫 단체교섭에서 노조 측은 △노조활동 보장 △각종 차별 금지 △직원들의 근로 조건 및 권리 회복을 주된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학교 측은 △근로시간면제 △경영권 침해 방지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현실화(육아휴직수당 10만원 인상) △근로시간 등 월차문제 정리 △긴급재해복구 시 연장근무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학교와 노조가 내놓은 요구안 중 쟁점이 된 6가지 안건은 △성과급제 적용에 따른 신입직원 차별 △정년 연장 문제 △기능직 직종전환 △월차 △노

동조합 가입 범위 △2006년 파업에 관련된 문제 등이다.

학교와 노조는 당초 9월 13일과 16일 양일 열리는 본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9월 13일 본교섭 회의에서 각 쟁점 및 파업 관련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 교섭일을 9월 30일로 연기했다.

9월 30일 있었던 제 6차 단체교섭에서도 양측이 안건에 대해 더 논의의 후 다음 회의를 진행하자는 노조 측의 제안으로 11월 제 7차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11월에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입장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금협상 중 학교 측에서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조는 “단체교섭 중 임금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은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에게 항의 공문을 보냈다. 이처럼 학교와 노조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 해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소환사의 협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학교 양 배움터에서는 이색 경기로 '리그오브레전드' 대회가 열렸다.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 이하 LoL, 롤)는 대표적인 AOS(상대방의 건물을 공략하는 게 목적인 게임 장르) 온라인 게임인 2011년 12월 한국에 상륙한 후 현재는 15개의 게임 구단이 만들어지고 전국 단위의 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서울배움터에서는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롤 대회를 주최한다. 가을대동제 중 'HUFs LOL the Champions Fall 2013'라는 이름으로 열려 과 팀, 동아리 팀 합쳐 총 64팀이 참가했다. 64강전은 게임 시작 전 상대 팀이 선택한 캐릭터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픽으로 온라인 예선을 통해 진행됐다. 32강전은 블라인드 픽 오프라인 예선으로 16강전부터 드래프트 픽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드래프트 픽은 블라인드 픽과는 반대로 게임 시작 전 상대 팀의 캐릭터를 알 수 있다. 3, 4위전 및 결승전은 대동제 첫 날인 10월 사이

버판 대강당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다. 지난 게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상금 100만원이며 특별히 10만원의 MVP상금이 준비돼있다.

글로벌배움터에서도 동아리연합회 주최 롤 대회를 열었다. 'LOL HUFs Championship'라는 이름의 이 대회는 학과 11팀, 동아리 5팀 합쳐 총 16개 팀이 참가했다. 9월 30일 태국어통번역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와 16강전 블라인드 픽 게임을 개막전으로 시작해 4일 8강전 드래프트 픽, 8일 준결승전 드래프트 픽, 9일 결승전 블라인드 픽으로 끝을 내린다. 결승전 5판 3선승제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은 모두 3판 2선승제다. 지난 게임의 자세한 대결 내용은 페이스북 페이지 'LOL HUFs Championship'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상금이 지급되는데 1등 4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4등 5만원이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우리학교 학생들, 워킹홀리데이 길잡이 되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기획한 워킹홀리데이(이하 워홀) 설명회 '워홀열차'가 9월 30일 서울배움터 사이버관 303호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를 꾸민 학생들은 오예은(인문·언어인지 11), 이경희(통번역·이탈리아어 08), 이슬기(동유럽·체코어 11), 이승진(중국·중국 09), 최소리(동양어·태국어 09) 5명이다. 이들은 외교부 워홀 인포센터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공적인 워홀을 위해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서포터즈인 '워홀프렌즈'에 참가 중이다.

이들이 속한 서울 3팀은 워홀프렌즈의 다른 팀과 달리 모든 구성원이 우리

학교 학생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워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뒤 이승진 군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군은 영화 '설국열차'를 모티브로 삼은 이번 설명회의 특징을 살려 영어능력과 워홀에 대한 정보량에 따라 약간부터 꼬리칸으로 나눈 맞춤형 조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군은 “1년간 호주로 워홀을 다녀왔던 경험을 살리기 위해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 만큼 학생들에게 생생한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질문·답변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조은혜(서양어·독일어 13) 양은 “평소 해외 유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서 이번 설명회를 찾아오게 됐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경희 양은 “워홀에 대해 환상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슬기 양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막연히 외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만 했던 학생들이 정말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외대학보 제 2회 학술대전

- ▶ 응모 자격 : 우리학교 학생 누구나(휴학생, 대학원생 포함)
- ▶ 공모 기간 : 9월 1일(일)부터 ~ 11월 15일(금)까지
- ▶ 주제 : 자유 (모집 분야에서 택)
- ▶ 모집 분야
 - 중·단편 소설: A4용지 15매 이상
 - 논문: A4용지 20매 내외
 - 컴퓨터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 ▶ 수상작 발표 : 2013년 2학기 중 개별 연락 및 외대학보 지면
- ▶ 응모 방법
 - 이메일 : hufspress@hmail.net
 -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 401호 외대학보사 130-791
- ▶ 문의 사항 : 02-2173-2504

- ▶ 상금
 - 대상 70만원 및 상패
 - 최우수상 50만원 및 상패
 - 우수상 30만원 및 상패
- ▶ 유의사항
 - 논문,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은 팀 제출 가능.
 - 출품된 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분야별 우수작끼리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 분야별 시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수상 이후 표절로 판명됐을 경우 수상 및 상금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은 표절 당사자에게 있음.
 - 공모전 일정은 학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인 1작품 출품
- ▶ 심사기준 : 본지 957호 12면 '외대학보 제2회 학술대전 심사 총평' 참조

지구촌을 읽다-②

영원한 애니메이션 발전소, 진격의 일본!



김희경 교수
교양학부 및 문화콘텐츠연계전공 외대교수

마징가 Z, 독수리 5형제, 캔디캔디,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등은 필자가 어린 시절 열광했던 애니메이션이다. 당시의 어린이들은 이 애니메이션들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라고 알고, 좀 더 큰 후야야 일본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친구들과 함께 주제를 따라 부르기도 했고, 월요일이면 전날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오랫동안 일본과 미국의 하청기지였던 우리나라의 60~80년대의 국산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의 제작사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걸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수많은 모방 작품이 있었다. 하청국가다 보니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에만 익숙했지 자생적인 기획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후로도 한동안 우리의 따라하기는 계속됐다.

1980년대 후반에 이현세·허영만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TV와 극장에서 개봉된 이후 수많은 국산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현재는 EBS, KBS를 비롯한 케이블의 어린이 대상 방송국에서 뽀롱뽀롱 뽀로로, 로보카 폴리, 코코몽, 안녕 자두야, 외라 편의점 등 양질의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전히 일본과 미국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는 가운데 이러한 국산 콘텐츠가 단순히 끼워 넣기 식이 아닌 초등저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막강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역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위의 국산 애니메이션들은 다분히 교육적이고 '착한' 작품들이라 학부모 입장에서 더없이 좋으나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장르가 한정적이라 다양성이 부족하다. 여전히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나 보는 것, 유지한 것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 애니메이션은 분야별 다양성과 함께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참신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학원물, 마법소녀물, 스포츠물, 코믹게그물, 공포물 등 마치 잘 차려진 뷔페 음식처럼 골라서 즐길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금기시되는 소재를 특이하게 다루거나, 눈 살 찌푸려질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장면을 거침없이 다루기도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 철학적이거나 미학적이기도 하다. 재미를 위해 도덕과 교육을 양보한 셈이다. 그래서 재패니메이션, 애니메라 불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코드를 가진 대중문화로 어필한다. 또한 TV, 극장 외에 OVA(Original

Vide Animation)라는 플랫폼으로 출시돼 비디오나 DVD로만 제작되는 애니메이션까지 볼 수 있다.

2013년 상반기 일본의 장르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가 음악으로 32%, 2위가 애니메이션으로 29%를 차지했는데 음악 중에는 애니메이션 주제곡이나 캐릭터 주제곡이 주간 랭킹에 매주 TOP10에 들어갈 정도로 애니메이션의 점유율이 높다. 실제로 2009년 4월 17기 첫 방송부터 2010년 9월 27기에 걸쳐 방송된 K-ON의 1기에 나왔던 음악 'Don't Say Lazy'는 당시 음반 판매 최고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만큼 일본 내에서는 애니메이션 한 편이 끼치는 파생효과가 대단하다.

1956년 토에이 동화에서 출발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오랫동안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장르, 참신한 내용과 더불어 이것들을 지휘하는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있기 때문이다. 데즈카 오사무(아톰, 레오, 블랙잭 외), 미야자키 히야오(미래소년 코난,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벼랑 위의 포뇨, 바람이 분다 외), 호소다 마모루(디지몬, 원피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외), 신카이 마코토(별의 목소리, 초속 5센티미터, 언어의 정원 외), 아라키 데츠로(테쓰노트, 진격의 거인 외) 등 우리가 '아' 그 작품하면 떠올리게 되는 감독들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쌓아온 그들의 내공에 다음 작품을 기대하고, 어떤 것이 될까 기다린다. 즉, 우리는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한다. 영화와 다른 애니메이션만의 감성과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솜씨, 그리고 미지의 시공간으로 2시간 정도 순간이동하게 만드는 그들의 연출과 스토리텔링에 감동한다.

그 중심에 이번 해 73세인 미야자키 히야오가 있다. 9월 1일 그는 은퇴를 선언했다. 그의 은퇴선언은 1997년, 2004년에도 있었지만 그는 매번 다시 우리에게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 개인적으로 번복을 좋아하지 않지만 미야자키 히야오의 2013년 은퇴선언은 그러기를 바란다. 물론 그의 작품이 모두 훌륭하고, 흥행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토토로를, 센과 치히로를, 포뇨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추억·여성·어린이(순수)·반(反)전쟁·비행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제들을 사실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건조하게만 그렸다면 우리는 차라리 소설을 읽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 전달에 있어 일본의 수많은 신과 정령을 과거·환상·미래의 시간에 배치시킨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남성지배적인 사회에서 소녀와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섬세함과 포용력으로 사회변화를 모색한다.

미국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한마디로 아름답다. 한마디 더한다면 역동적이다. 'OO공주는 OO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라고 한마디 특 던지고 끝이 난다. 뜬금없이 나타남, 주로 하얀말을 타고 오는 남자나 왕자는 처음 본 아가씨나 공주에게 첫눈에 반해 그녀의 성격이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한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하얀 오의 애니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는 스스로 고난을 겪고 역경을 헤쳐 나감. 거대한 괴물과 거침없이 싸우기도 하고 공동체의 수장이 되기도 한다. 현실에서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일을 그녀가 대신함으로써 우리의 욕망은 충족된다. 또한 미야자키 히야오 작품 속의 공간적 배경들은 삭막한 도시와 딱딱한 빌딩, 그리고 분주한 도로가 아닌 초록의 숲과 자연, 그리고 푸른 하늘로 우리를 치유한다.

그는 은퇴하지만 그가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에서는 계속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것이다. 그의 아들 미야자키 고로부터 그 외 수많은 스튜디오 애니메이터들도 계속해서 작품을 통해 '미야자키 식의', '미야자키다운' 작품들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다. 더불어 그의 은퇴가 마냥 아쉽지만 많은 것은 일본 동경 하코네에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이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개관한 이곳은 토토로, 고양이 버스, 라퓨타의 로봇 등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낳은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곳의 주제는 미야자키다. 다 함께 이다. 길을 잃은 아이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길을 찾기 위해 여기 저기 헤맬 것이다. 즉 지브리 미술관은 불가사의한 건물들, 영겨진 전시물, 불친절한 동선들을 통해 어수선하고 뒤죽박죽이며 정신없는 상태로 관객들을 유도하고 그런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처럼 미야자키 히야오의 캐릭터는 늘 모험을 한다. 여러분도 지브리 미술관에 가면 메이와 사츠키처럼, 키키와 같이 모험을 할 수 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부는 열대 바람이라는 뜻의 지브리에서 여러분은 미야자키 히야오의 열정 바람이 온몸을 스치고 지나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힘이 아닐까.



▲바람이 분다, 이웃집 토토로



▲지브리 미술관 외부 전경

7+1 일본 칸다외어대학 파견을 다녀와서

2013년 3월 26일, 인천공항

나는 30kg의 짐을 온몸에 둘러매고 나리타행 비행기 체크인 줄에 서있었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떠나는 7+1이라 부담됐지만 전공자면서 일본 현지에서 생활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진로에 대한 강한 확신이 나의 결심을 굳건하게 했다. 내가 선택한 칸다외어대학(神田外語大学)은 1987년에 설립된 신생 사립대학으로 기존의 대학과 달리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외국어 교육에 대한 기반이 정말 잘 돼있다. 게다가 도쿄에서 30분 거리에 있기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학교생활은 항상 즐거웠다. 내가 소속된 유학생들과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 보니 다양한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예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나는 일반 학부 수업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함께하는 학생도 일본인이었기에 이때가 일본어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던 것 같다.

수업 외에는 한국어전공 교수님의 초대를 받아 매주 그 시간에 보조교사로 들어갔고 마르카라는 외국어 전용 구역의 한국의 집에서 원어민 튜터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어와 친구들의 한국 사랑과 한국어 실력은 정말 대단했다. 이 친구들과 그 동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내년에 우리학교 등에 교환학생으로 온다고 하니 이전 내가 반대로 은혜를 갚을 계획이다.

학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학교행사는 마쿠차리라는 자선 플라마켓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봉사에 참여했다. 더운 날씨에 힘들만도 한데 불평하나 없이 밝은 표정으로 모두 최선을 다했다. 이를 동안의 판매를 마치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는 발표가 나오자 서로 부둥켜안으며 기뻐했고, 울음을 터트렸다. 지금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함과 진심이었다. 이처럼 지면 관계상 다 쓰지는 못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 채 썰 수 없다. 나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며 달콤한 꿈같은 시간이었다. 곧 있으면 7+1파견 등의 신청이 시작될 텐데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경험하길 권한다.

최현명 (통번역·일본어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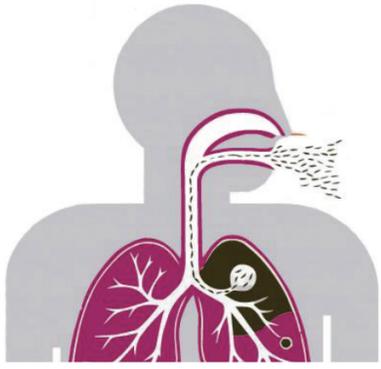
제 6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배 토론대회

공동주관 토론대회 운영위원회 & 인터넷 서점 Yes24

- ▶ 지원 자격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학생 / 2~3명으로 팀 구성
- ▶ 대회 일정 2013. 10. 1 - 11. 29
- ▶ 접수 방법 블로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 철학과 과사무실)
- ▶ 접수 기한 2013. 10. 1 - 10. 19
- ▶ 참가비 팀당 30,000원
- ▶ 예선 에세이 ▶ 에세이 주제 "투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 본선 토너먼트 방식
- ▶ 시상 내역 우수 1팀 - 총장 직인의 상장 및 상금 60만원 및 부상(크레마샤인)
- ▶ 준우수 1팀 - 총장 직인의 상장 및 상금 30만원
- ▶ Yes24상 1명 - 상장 및 상금 15만원

▶ 문의 토론대회 운영위원장 최 진옥 010 5872 0828
토론대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hufsdebate>





생각보다 젊고 무서운 병 '결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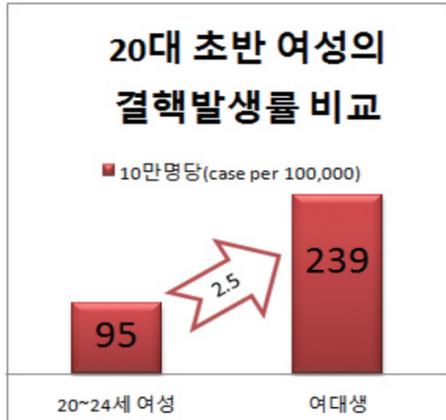
대학가 점점 먼저 안심은 금물

최근 대학가에 결핵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 1위라는 기록을 하고 있다. 특히 20대 결핵 발병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결핵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이번 호 기획에서는 '결핵'이란 어떤 질병이고 대학생에게 결핵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결핵, 그게 왜요?

우리학교 기숙사는 매학기 학생들에게 결핵 진단서를 받아 결핵 발병 여부를 검사한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서울배움터에서 3명, 글로벌배움터에서 1명의 결핵환자가 나왔다. 비단 우리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건국대학교에서 5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해 전국 대학 내 비상이 걸렸다. 이에 우리학교 보건소에서도 학생들에게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결핵이 대학가에 번지는 이유는 뭘까. 그 중 하나는 '무관심'때문이다. 글로벌배움터 50명 학생을 설문 면담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결핵 발병률 및 사망률 1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평소 '자신이 결핵이란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아영(통번역·스페인어 13) 양은 "결핵은 담배처럼 심각성에 관한 교육이나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남의 일 같이 여겨진다"며 결핵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결핵이 흔히 '후진국 병'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우리나라의 발병률 및 사망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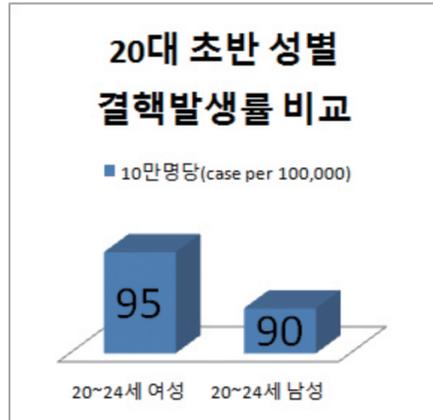
이처럼 결핵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20대 결핵 발병률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됐다.

◆왜 대학가에 번질까?

양 배움터 보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대학생 결핵이 번지는 이유로 꼽았다.

대학생들 전체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는 않아

중·고등학생이 매년 정기 신체검사에서 결핵 검진을 받는 것과는 달리 대학생에게 신체검사는 필수가 아니다. 기숙사 입사나 ROTC를 하는 학생 외에는 정기검진을 받을 일이 없다. 또한 허수안 글로벌배움터 보건실장은 "대학생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중·고등학교 때는 한 교실에서 생활하므로 한 학생이 결핵에 감염되면 그 교실만 감염위험지역으로 설정해 검사를 실시하면 되지만 대학생의



경우 감염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강의를 듣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흔히 20대가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해 대학생이 건강관리에 소홀한 것이 결핵에 대한 노출을 높이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는 결핵 보균자로 예측돼 대학생 역시 결핵의 위험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허 실장은 "이제는 학생들도 스스로의 건강관리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머물러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결핵전염의 조건 중 첫 번째는 햇빛이 들지 않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다. 결핵균은 열과 햇빛에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주로 머무는 과방, 동아리방 같은 경우 빛이 들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 많다. 학교 밖에서도 주로 지하에 있는 주점, 노래

방 등에서 음주를 즐기는 대학생은 결핵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이어트·영양부족'여대생 특히 결핵비상 20대 초반 여성이 또래 남성보다 결핵 유증상자 많아

과거보다 더 풍족한 의식주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 대학가에 결핵 발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특히 '여대생'의 결핵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 결핵통계포털 시스템(TBSAS)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유독 20대에서만 여성의 결핵 발병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특히 여대생의 결핵발병률은 일반 20대 초반 여성의 결핵발병률의 2.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62개 대학교 여학생 2만1천74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증상자가 5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39명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만 20~24세 여성 전체의 결핵 발생률인 인구 10만 명당 95명보다 2.5배 많은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만 20~24세 남성의 결핵환자율은 인구 10만 명당 89.9명이었지만 같은 연령대 여성의 환자율은 95.3명이었으며, 신환자율도 남성은 72.3명, 여성은 80.3명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결핵 환자율이 더 높았다. 만 15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결핵환자율과 신환자율이 여성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과 달리, 20대 초반만 여성이 결핵에 걸리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다. 결핵은 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병한다. 이 때문에 일부 20대 여성의 다이어트는 영양부족 및 저체중을 초래해 결핵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 것이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결핵!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자

Q. 우리학교는 지금?

현재 우리학교 서울배움터는 결핵감염자가 나온 후 감염자와 수업이 3개 이상 겹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배움터 역시 학생들에게 결핵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다. 약을 먹고 치료를 시작하면 결핵 전염력이 빠르게 소실되므로 현재 교내 결핵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완치될 것으로 보인다.

결핵은 치료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지만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타인에 대한 전염력은 빠르게 소실된다. 치료하면서 2주 정도 약을 복용하면 대개의 경우 전염력은 사라지므로 대부분 결핵 환자는 치료기간 내내 등교 중지 또는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 김혜정 서울배움터 보건실장은 "우리학교 결핵 감염자였던 학생도 결핵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따로 격리를 시키거나 학교를 못 나오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Q.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가?

결핵은 흔히 '후진국 병'이라고 불리지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결핵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로 3만 5천여 명의 결핵이 발병하며 2천 3백 명이 사망하는 나라다. 즉 결핵발병률이 11년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00명으로 OECD국가 평균의 8.3배, 미국의 27배, 일본의 5배가 되는 수이다. 허수안 글로벌배움터 보건실장은 "우리나라

는 질적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 결핵이 줄어야 하지만 오히려 많이 번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핵에 대해 무지함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핵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제 1기 결핵 관리 종합계획안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은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결핵? 대처하는 방법은?

Q. 결핵(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뜻은?

결핵은 결핵균이 우리 몸에 침입해 일으키는 '전염성' 질병으로 대부분 폐에서 발병하지만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속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Q. 결핵의 감염경로는 어떻게 될까?

결핵균은 오직 '호흡기'를 통해서만 감염되므로 결핵환자가 사용했던 식기, 의복, 침구류 등 환자의 물건은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며 따로 소독할 필요는 없다. 즉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결핵균을 들이 마시으로써 감염되는데 결핵균을 포함하고 있는 작은 침방울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상당기간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수많은 미세한 침방울이 입이나 코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Q. 결핵균에 감염되면 무조건 전염되는 건가?

아니다. 결핵균에 감염되더라도 면역력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발병하지 않는다.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 시 70%는 면역반응으로 감염되지 않고 결핵에 감염된 30% 중 90%는 잠복결핵감염으로 평생 건강하게 지내고 오직 10%만이 발병을 한다. 즉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면 감염 되더라도 질병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Q.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로 언제 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하지만 잠복결핵 감염자는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시킬 수는 없다. 잠복결핵감염 진단법에는 피내 주사인 투베르쿨린 검사(TST)와 혈액 검사인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IGRA)가 있다.

Q. 결핵의 증상은 뭐까?

결핵의 증상은 감기와 매우 흡사하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과 가래'다. 폐결핵의 증상은 기침, 가래가 2~3주 이상 지속되고 잠잘 때 식은 땀이 나며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지고 피로감을 느끼고 몸이 힘든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 결핵예방은 '잘 먹고 잘 자는 것'

결핵은 건강관리를 통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히 예방가능하다. 적절한 운동과 개인 위생관리, 충분한 수면, 기침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양 배움터 보건실장은 "대학생들은 신체검사를 잘 받지 않아 결핵 감염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결핵의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꼭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스스로 병의 심각성을 알고 진료를 받았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수안 글로벌배움터 보건실장은 "대학생은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습관을 고쳐야 한다"며 "젊다고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리함으로써 결핵 뿐 아니라 다른 질병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여학생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혜정 서울배움터 보건실장은 "결핵은 공기 공유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우며 태어날 때 결핵 예방주사를 맞고 그 후에 성인이 돼 감염되는 경우는 예방할 방법이 없다"며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약물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초반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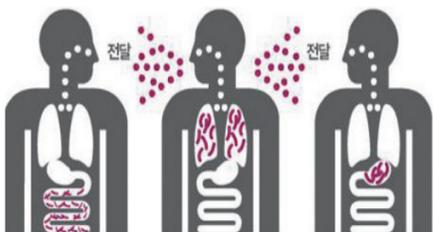
Q. 결핵은 어떻게 진단할까?

결핵 진단법은 크게 흉부 엑스선 검사와 객담(가래)검사이다. 흉부 엑스선 검사는 가슴부위의 엑스선 사진을 촬영해 폐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이며 흉부 엑스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담검사를 실시한다. 객담검사는 환자의 가래를 받아 현미경으로 결핵균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결핵균을 죽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결핵약 복용'이다!

Q. 결핵 치료법은 뭐까?

1차로 4종류의 결핵약으로 최소 6개월간 치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규칙투약하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면 다제내성 결핵으로 발전하여 2차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주사제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4종류의 결핵약으로 18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 2차에서 치료되지 못하면 난치성 결핵으로 발전하며 사망할 수 있다. 결핵약은 결핵 증상이 해소된 후에도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완치가 가능하다.



용인 영어마을부지... 8년간의 침묵

용인시의 약속 불이행 이후 표류하는 영어마을 사업



▲정문 옆 안내실 뒷쪽에서 바라본 용인영어마을 부지 내부 전경



▲한국 외대 용인영어마을 조감도



▲용인영어마을부지의 시공사였던 코오롱건설이 공사를 위해 친 철제 벽 외관 전경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는 정문부터 기숙사까지 긴 철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다. 원래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가 협력해 2007년부터 추진해오던 영어마을이 조성될 부지였다. 하지만 용인시청의 재정난으로 영어마을은 백지화가 된 상태. 신비주의에 둘러싸인 철제 바리케이드 속에 대해 알아보고 부지를 활용할 대안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정문 앞 철벽, 그곳은 무엇인가

글로벌배움터의 정문 바로 뒤 오른쪽에는 알 수 없는 땅이 있다. 신입생의 대부분은 왜 이와 같은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 사실 그 곳은 '용인 영어마을 부지'이다. 정확히 이 땅은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75-2번지 일대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내에 위치한다. 면적은 6만 456㎡, 연면적은 2만 1,079㎡, 수용인원은 400명이다. 우리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용인시가 440억 원을 투입해 2012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용인 영어마을을 교육시설, 기숙사, 생활시설, 문화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려고 했던 곳이다.

언제, 왜, 누가?

용인 영어마을은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서정석 시장 후보의 공약에서 시작한다. 공약으로 추진을 시작해서 시장 취임 1년 만에 사업계획을 마치고 2007년 12월 사업비 600여억 원 가운데 영어마을 조성 기본 설계비 6억 원을 상정했다. 2000년대 초에는 경기도 내 영어마을이 유행처럼 지어지고 있었던 때라 시장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영어마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이 사업은 빠르게 추진됐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영어마을이 적자운영에 허덕이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드러나며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운동과 논란이 확산됐다. 또한 2008년 당시 김민기 용인시의원은 △영어마을이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목표달성 불가 △특정 대학의 영어사업에 세금을 쏟아 붓는 특혜 △등기 불가로 시민 재산권 확보 불가 △세입이 줄어드는 용인시 재정 상황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사업 불가를 주장했다. 마침내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립학교법에 의해 공동등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어내 영어마을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2008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사업종료조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영어마을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집행부에 의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2009년도 본예산 70여억 원을 승인하는 데에 동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영어마을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 없이 건축면적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100억 원 넘게 증액하는 등의 잘못을 밝혔다. 결국 2010년 용인시는 영어마을 조성사업 백지화 내용의 협약 해지문을 공동사업자인 한국외대에 최종통보하며 사업은 중단됐다.

현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정문 왼쪽이 개울인 반면 오른쪽은 철제 벽이 쳐져 있어 외관을 매우 해친다. 철제 벽 뒷편으로는 이전부터 이용되던 등산로가 나있다. 마을 주민들은 현재에도 그 길로 산을 오른다. 사람의 발길로 만들어진 등산로를 제외하고 주위는 풀숲이 우거져 있었고 코오롱이 건설 당시 현장사무소로 이용하던 컨테이너 하나만이 이곳이 용인 영어마을 부지 자리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학생, 경비, 용인시 모현면 마을사람 모두가 철제 벽의 존재와 땅이 방치되는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다.

◆왜 아직 방치되고 있을까

코오롱 VS 용인시 VS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시는 2008년 12월 한국외대와 '용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한국외대는 영어마을 운영권을 갖는 대신 캠퍼스 내 부지 6만여㎡를 시에 제공하기로, 용인시에서는 440억 원에 달하는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우리학교는 2009년 1월 인근 토지 9천여㎡를 새로 매입했고 당시 시는 우리학교에 교육사업 목적의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줬다. 그리고 용인 영어마을의 시공사는 코오롱 건설로 선정됐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 10월 용인시는 "영어 마을을 운영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돌연 사업을 중단시켰다. 터파기 등으로 파헤쳐진 사업부지는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됐고, 학교시설 용지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사업 중단 얼마 후 "취득세 감면 기간 3년 이내에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약 1억 원의 취득세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한국외대 측은 "이 통보는 땅이 시의 일방적 사업 중단으로 애초 계획한 영어마을 부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실의 책임'을 학교 측에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대학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사들인 결과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취득세까지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우리학교 관계자는 "손바닥 뒤집듯 멋대로 사업을 중단하고, 대학 명예 실추와 재산상 피해 등은 '나 몰라라'하는 것이 민선 5기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역시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피해 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시는 코오롱 측으로부터 사업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2012년 8월 결국 패소해 25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 후 코오롱은 2심 이익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소송 취하하며 2012년 12월 모든 재판이 끝났다.

▲ 시기별 영어마을사업의 추진에서 중단까지 과정

2006년	5월 지방선거당시 서정석 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
2007년	서 시장 취임후 사업계획수립 후, 설계비 6억원 상정
2007년 6월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경제성 비율로 드러남
2008년 4월	용인시민단체에서 영어마을 반대운동, 김민기 의원이 사업불가 주장
2008년 12월	용인시와 한국외대 영어마을 MOU 체결
2009년 1월	한국외대 인근토지 매입, 교육사업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감면혜택받음
2009년 12월	용인영어마을 기공
2010년 10월	용인시에서 사업 백지화 최종통보
2011년	용인시에서 부동산 취득세 1억원 납부 요청, 한국외대 측에서 시의 과실로 사업중단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음
2012년 8월	사업 중단 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용인시에서 코오롱에 25억원 배상
2013년 ~	앞으로의 영어마을부지는??

◆용인 영어마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업이었나

영어마을 열풍으로 시작해 결국 예산 부족으로 끝난 용인 영어마을 사업은 사실 사업 초반 타당성 용역 조사 당시부터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용인시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에 헛돈을 쓴 것이다. 용인시는 2008년 부정적인 타당성 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용인시가 2007년 6월에서 8월 2300만원으로 진행한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64(1.0이상 경제성 있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시는 시의회 의결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당시 시장의 주요공약사항이었다"며 해명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2012년 12월까지의 소송 중에 있는 땅이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 소송은 종결됐고 땅은 학교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철제 벽을 치워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학교 측에서 거절한다고 답했다. 시에서는 과거 용인 영어마을 부지였던 곳에 대한 어떠한 보상, 도움, 사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송수환 글로벌배움터 기획건설팀장은 "용인시가 철제벽을 치워준다는 말을 들은바 없다. 일단 철제 벽을 철거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코오롱 측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학교는 아직도 철제 벽을 치우는 것에 대한 말이 달랐다. 땅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송 팀장은 "신본관 건설에 치중하느라 아직까지 용인 영어마을에 대한 계획은 없다. 하지만 학교 외관상에도 좋지 않아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2010년 영어마을 조성이 전면백지화 되면서 31대 총학이 용인시에 반발해 철제 벽에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너 요새 무슨 책 읽어?

대학생 독서 현황 리포트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왔다. 하늘은 높고 맑은 살피는 천고마비의 계절. 마음의 양식인 책을 읽어 우리 마음도 풍요롭게 하자. 이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사실 책을 읽고 싶지만 현실은 개강 첫날부터 몰아치는 과제 폭풍에 책을 여유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성인이라는 대학생이 아닌가. 어쩌면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 그래서 준비했다. 조금 식상하지만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요새 무슨 책 읽으세요?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떤 책들을 주로 읽고 있을까? 이번 해 각각 서울배움터와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책들을 조사해봤다.

서울과 글로벌 양 배움터에서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한 책은 바로 이원복 교수의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였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을 배우는 우리학교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다. 이 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든 책이기에 쉽고 재밌지만 모든 세대가 공감하며 흥미진진하게 읽어 나갈 만한 교양 만화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을 찾아 떠나는 여행 속으로 안내한다. 꼭 알아야 하는 역사 속 위대한 사건만을 엄선해 재미있고 유쾌하게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양 배움터 상위 대출 목록에 「FLEX 영어」책이 올라와 있다는 점이다. 이는 FLEX 외국어시험의 주관인 우리학교에서 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한편 서울배움터 학생들은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50선」을 가장 많이 읽었다. 이 책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화화 그려진 책이지만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꼭 읽어야 할 책 50권을 선정해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대체적으로 서울배움터 학생들은 「고

구려」, 「1Q84」와 같은 문학. 분류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은 「사기」, 「로마인 이야기」와 같은 역사물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책의 분류는 도서 분류표에 따름. 사기는 만화형식이나 역사로 분류)

요즘 제일 잘나가는 책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을까?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린다는 책들을 살펴봤다. 교보문고 9월 4주 자료

받았다.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한국 등 여러 국가의 비즈니스맨들이 펼치는 생존경쟁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다. 독자들 사이에선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또 이 책은 중국이 경제 강대국으로 우뚝 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작가지적 고민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라면 누구나 알고 싶은 방법이다.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한 '커뮤니티'는 많지만 짧고 표면적인 대화에 그칠 뿐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소통은 잊혀진지 오래다. 이러한 사회 속에 현대인들은 진정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 책은 주인공 '신우현'의 이야기를 통해 직장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일과 인간관계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인생에 있어 행복을 결정짓는 두 가지 질문, '자신의 일에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게끔 안내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산적으로 인맥을 관리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누군가에게 인생에서 먼저 나부터 믿고 의지하며 위로가 되는 진정한 친구가 됐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3위는 김은주의 「1cm+」다. 이 책은 KBS 예능프로인 '인간의 조건'에 방영돼 화제가 된 책이다. 알록달록한 일러스트와 함께 일상의 이야기들을 저자 특유의 기발한 발상과 관찰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에서, 딱 1cm만큼의 길이 혹은 깊이에 더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선다. 예를 들어 남녀 간에 존재하는 1cm의 차이를 발견해, 그 마음속으로 1cm 들어가 보고, 1cm만큼의 여유를 권하거나, 사람과의 거리를 1cm 좁히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짝막한 글과 한 컷 그림을 통해 펼쳐진다. 또한 독자들에게 보고 느끼고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기를 이끌며, 일상에서 잠시 멈춰 생각해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한다.

다르지 않아, 인생은

사람들의 손이 가고 많이 읽혀지는 책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장르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지만 딱 한 가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맞닥뜨린 시대, 그 속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며 우리는 공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철학자 몬테스키외는 이렇게 말했다. '책 읽기를 즐긴다는 것, 그것은 권태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번 학기 우리들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외대인들이여 책을 읽읍시다!

오유진 · 조인우 객원기자



를 토대로 1위부터 3위를 소개한다. (스포일러 주의)

1위는 조정래 작가의 소설 「정글만리」가 차지했다. 이 책은 원래 이번 해 3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연재되던 온라인 소설이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굵직한 대작들을 남긴 조정래 작가의 신작으로 당시 온라인에서도 독자들의 조회 수 1백만 회 이상, 댓글 1만 건 이상의 많은 관심을

에 대한 통찰과 전망으로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위는 레이먼드 조의 「관계의 힘」이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No	서명	저자	출판사	빈도
1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1946-	김영사	113
2	(FLEX) 영어	이성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97
3	食客(식객)	허영만	김영사	88
4	사기	ヨコヤマ, ミツテル	시공사	78
5	君臨天下(군림천하)	용대운	파피루스	75
6	미생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74
7	살림지식총서	이정은	살림	69
8	졸렬왕 바하문트	쥬논	삼양출판사	68
9	로마인 이야기	シオノ, ナナミ	한길사	65
10	(FLEX) 프랑스어	원종익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56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이용현황

No	서명	저자	출판사	빈도
1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50선	손영운	주니어김영사	333
2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1946-	김영사	191
3	고구려	김진명, 1958-	새움	140
4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휴머니스트	134
5	미생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130
6	(FLEX) 영어	이성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26
7	(시나공 토익) 만점의 법칙	김병기	길벗이지톡	123
8	1Q84	ムラカミ, ハルキ	문학동네	116
9	해리포터 시리즈	Rowling, J. K	문학수첩	111
10	신	Werber, Bernard	열린책들	107

▲서울배움터 도서관이용현황

운동 (월)

임수진 기자

어깨너머 듣는 교양

유경희(교양학부, 우주와 인간 과목 담당강사)

나의 뛰던 그라운드는

'연고지'는 혈통, 정분, 법률 따위로 관계나 인연이 맺어진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그리고 어디 사는지는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몇 가지 중 하나다. 물론 지연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요소 중 하나긴 하지만 타지에서 동향 사람을 만나면 무척 반갑고, 어린 시절 잠깐 살았던 지역일지라도 같은 지역 출신인 사람을 보면 괜히 더 정이 가는 것은 그런 이유일 것이다.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든 연고지는 중요한 의미를 띤다.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부산 사람들의 애정이 남다르듯, 성적에 관계없이 그저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태어난 곳의 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팀을 사랑하는 팬들이 많다.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많은 프로팀들이 연고지의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프로축구팀 성남일화가 연고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9월 문성명 통일그룹 총재가 세상을 떠난 이후 통일그룹이 성남일화 프로축구팀 경영을 그만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일화를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한다고 발표했다.

두기로 했다. 그러자 갈 데가 없어진 성남일화를 성남시가 아닌 안산시에서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성남시는 성남일화 인수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 직전 성남일화의 팬들과 축구연합회가 2차례 궤기대회를 연데 이어 붉은 악마와 K리그 서포터즈연합 대표단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축구팬들이 연고지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마침내 성남일화를 인수해 시민구단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평소 다른 팀의 축구팬들이 일제히 성남일화의 연고지를 지켜주기 위해 나서고, 성남시의 인수 결정에 성남일화 팬들과 기뻐해줬던 것은 어쩌면 저마다 응원팀의 연고지와 인연을 맺고 있어서일 것이다. 연고지를 지켜 내 팀, 내 그라운드와의 인연을 소중히 지켜나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번에는 성남 팬들과 축구팬들의 진심이 통한 모양이다.

우주와 인간

내가 강의하는 '우주와 인간'이란 제목은 가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가보다. 종교와 관련된 수업이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오해라기보다는 우주와 인간을 이해하는 좋은 출발일 수 있다. 천재라 일컫는 아인슈타인도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저 우주 깊은 곳에 신이 존재하는 것을 느낀다'고 얘기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주와 인간'은 순수한 천문학 수업이다.

매학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어 보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에 천문학자나 우주비행사를 꿈꾸었던 것을 알고 놀라곤 한다. 무엇이 어린 시절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까? 그것은 수만 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듯이 알 수 없는 먼 곳에서 신비한 빛으로 반짝이는 별들 때문일 것이다. 한번쯤은 천체망원경을 사서 매일 밤하늘의 별을 보는 희망을 품었음직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가 천문학자가 될 수 없고, 주변은 너무 밝아 별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현재 우리들은 너무 바빠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볼 여유조차 없다.

오늘이라도 해가 진 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으로 하늘과 친해지기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해가 진 서쪽으로 아직 여명이 남아 있는 하늘에는 여명에 굴하지 않는 밝은 금성이 먼저 눈에 띈 것이다. 차츰 여명이 사라지고 밝은 금성마저 서쪽 하늘로 저물게 되면, 하늘 높은 곳(사실은 북서쪽)

에 세 개의 별이 커다란 삼각형을 이루며 밝게 빛나는 게 눈에 보인다.

셋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직녀성(Vega, 거문고자리 1등성)이고, 직녀의 오른쪽 위에 있는 별이 데네브(백조자리 1등성), 왼쪽 위의 별이 견우성(Altair, 독수리자리 1등성)이며, 이 셋이 이루는 삼각형을 '여름철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른다. 계절은 가을의 문턱이지만 하늘엔 여전히 여름철의 별자리가 위용을 잃지 않고 있다.

견우와 직녀가 등장하니 떠오르는 전설에 의하면, 견우성과 직녀성 사이에는 두 별을 갈라놓은 은하수가 있다. 이 은하수에 백조자리의 몸이 폭 잡혀 있다. 눈이 좋고, 주변이 많이 어둡다면 보너스로 은하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1610년에 갈릴레오가 조악한 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 수많은 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는데, 그저 희미한 강물로 보였던 것은 은하수가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별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빛 강물이란 이름의 은하수는 우리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의 은하(Galaxy)이며, 서양에서는 Milky Way라고, 순수 우리말로는 미리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늘을 짚어가다 보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어릴 적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금성이 사라지기 전에 어서 금성을 찾아보면서 하늘 보기를 시작해 보자.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임수진 기자

이번 호도 무사히



처음부터 식상한 말 같지만 내가 수습기자였던 것이 정말 어제 일 같은데 벌써 88기 수습기자들이 들어왔다. 같이 일 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설렘도 있지만 한 학기가 다 갈 동안 대체 난 뭘 했나. 정기자가 될 만한가 개인적으로 반성해보기도 한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학술면을 쓰게 됐다. 이번 호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필자가 평생 수학과는 거리가 영 멀었던 탓이다. 바쁜신 교수님께 끈질긴 메일과 문자 메시지, 전화 끝에 간신히 잡은 약속이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미리 공부한다고 했지만 시계열 분석은 대체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도대체 뭘 질문해야 할지, 기사는 또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막상 교수님을 뵈고 취재를 시작하니 통계학이 재밌게 들리기 시작했다. 어려운 통계적 기법보다는 내 수준에 딱 맞는 맞춤형 강의를 해주신 덕분이다.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

나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시간 가량 동안 통계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재밌는 통계학을 독자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학술면에서의 고민만은 아니다. 취재와 청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취재원들이 말해준 이야기나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취재부터 기사 마감까지 매순간 긴장의 연속이다.

그 동안 신문을 제작하면서 힘든 일도 실수도 많았다. 학보를 생각하면 어깨가 축 처지기 일쑤인 필자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래도 아직 참 많다. 취재원들이 취재에 응해줄 때마다, 수고하라는 한마디 해줄 때마다 없던 기운이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

또 지난 호에 취재했던 교수님께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감동받은 적도 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지만 특히 가장 힘이 됐던 순간이 있다. 취재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외대앞역의 의자에 앉아 963호를 읽고 있는 한 여학생을 본 것이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고 시선이 마주친 것도 아니지만 이번호를 제작하는 내내 그 여학생이 마음에 많이 남았다.

나는 지난 호를 볼 때마다 기사를 쓸 때는 보이지 않았던 오탈자에 깜짝 놀라고 내가 쓴 한 문장 한 단어가 아쉽기만 하다. 이번 호 마감을 마치고서도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끔은 내가 외대학보에 기사를 쓸 자격이 있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본지를 사랑해주고 마음을 써주는 외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다시 한 번 다잡는다. 아직 내 기사가 자주 걱정되는, 갈 길이 먼 정기기자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무사히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내기로. 이번 호도 그런 마음으로 마쳤다.

학교의 신뢰성을 제고할 국가고객만족도 평가되길

직원의 말풍선



윤경욱 서울배움터 평가감사팀장

매년 12월에 한국생산성본부가 진행하는 국가고객만족도 교육서비스 조사 결과가 조선일보에 발표된다. 주요 대학들은 고객만족도 결과를 대학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다. 교육서비스 부문의 국가고객만족도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대상이며 4년제 대학은 14개 대학이 해당된다. 국가고객만족도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더욱 그렇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정시모집 원서 접수 등의 대학입시가 절정에 이른 시점에 발표되기 때문이다. 고객만족도가 좋게 나온 대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주저없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고객만족도 결과가 매우

좋지 않게 나온다면 수험생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고객만족도가 높은 대학이 더 좋을 것이다. 자신의 미래가 달린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객관성을 담보한 국가고객만족도는 상당한 신뢰성을 제공하는 듯 보인다.

최근 우리학교를 방문하는 동문들은 학교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어떤 동문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말할 수도 있다. 먼저 대폭 확장된 정문을 들어서면 답답했던 마음이 확 트인다고 한다. 그리고 최첨단 시설이 완비된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 파란 잔디가 펼쳐진 캠퍼스 곳곳에서 담소를 나누는 후배들, 최신식의 시설을 갖춘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후배들을 보면 참으로 부럽다고 한다. 서울배움터에 건설된 본관, 기숙사, 법학관, 미네르바 오디토리움, 사이버관은 넓고 작은 건물 몇 동 있던 학교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글로벌배움터에서도 최첨단 시설을 갖춘 기숙사 완공 후 지금은 신본관 건설이 진행 중이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정문 진입로 공사와 캠퍼스의 조경 공사가 곧 마무리

되면 더욱 멋진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학교는 건물 신축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했고, 적자에도 불구하고 값싸고 질 좋은 학생식당 운영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국내 최고의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는 등 학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국가고객만족도는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10년 14개 대학 중에 13위, 2011년에 14개 대학 중에 14위, 2012년에 14개 대학 중에 14위를 차지했다. 파업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6년 당시 고객만족도가 6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2013년도 국가고객만족도 교육서비스 부문 조사는 9월과 10월에 진행된다. 비밀리에 무작위로 진행돼 누가 대상인지 알 수 없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상승 반전함으로써 우리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외대를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구성원의 관심을 필요하다.

일시 정지

캠퍼스에 찾아온 가을



새롭게 단장한 서울배움터 잔디광장의 감나무에 감이 붉어지고 있다. 추석이 지나고 날씨는 부쩍 쌀쌀해졌지만 캠퍼스의 나무들은 단풍이 들려면 아직 멀었다. 그 외중에 감은 아무도 모르게 먼저 익었다. 앞으로 찾아올 '낭만 캠퍼스'가 기다려진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지난호를 말한다 |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김한나(동양어·이런어 12)

지난호를 말한다 |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함희석(통번역·스페인어 10)

면별 일관성 등 좀 더 세심한 구성을 노력하길

본지의 기사를 개별적으로 본다면 외대학생들에게 시사적이면서도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사들을 전체로 볼 때는 눈에 띄지 않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어색함까지 볼 수 있었다. 이에 구성적인 면과 제목을 선정하는 기술적인 면을 꼬집고 싶다.

첫째로 구성적인 면을 말하자면, 공통된 소재에 대한 대조적인 의견을 보이는 기사를 연이어 배치했다. 따라서 기사 간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는 독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지난 호는 학교의 가장 큰 변화인 '사이버관'을 화두로 삼았다. 이외에도 이를 중심으로 서울배움터의 새롭게 변한 공간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여럿 있었다. 1면에서는 사이버관의 완공이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교육환경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공간' 문제를 모두 해결된 듯 말한다.

그러나 2면에서는 노천극장이 없어지며 자치공간 등 학생들이 쓰는 공간이 부족해졌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또 그 아래 기사는 외부기숙사가 생겨 학생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확보됐다고 한다. 연달아 대조되는 의견과 명칭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

외에도 7면에서는 사이버관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듯했지만 사진 외에는 1면과 겹치는 정보가 실렸다.

두 번째는 기사 제목의 적합성이다. 사람들이 신문을 볼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큰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것이다. 제목이 중요한데 비해 외대학보의 제목은 틀에 박혀 딱딱한 느낌을 준다. 대학생 주제로 발행되는 신문답게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제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내용의 핵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목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독일어과 독문학회에서 새로운 학회지를 창간한다는 기사는 학부생이 만든다는 특색보다 현재 사회에서 홀대받는 인문학이나 문학을 재조명했다는 것이 더 큰 주제인데 제목에서는 주제를 반영하지 못했다. 다른 기사들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외대학보는 전과 비교하면 많이 발전했고 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대담하게 움직여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

공감대에 발맞췄으나 양 배움터 균형보도 부족해

지난 호는 개강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쓴 점이 특징이다. 이는 양 배움터의 제도나 대내외적인 큰 변화를 알려줬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중전공 세무안 확정', 서울배움터의 '사이버관 건립', '노천극장의 잔디광장 변화', 글로벌배움터의 '신본관 건립' 등의 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변화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사들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양 배움터의 변화에 대한 기사 가운데 기사 비중의 균형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냐는 아쉬움을 느꼈다. 사이버관 건립의 경우 1면의 3할, 7면 전체를 할애해 비중 있게 다룬 반면 한국어과의 신설은 겨우 3면 3할의 비중만 차지했다. 이를 보며 한국학과 신설관련 기사에 담당 교수 인터뷰 등 더 다양한 정보들이 실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또한 6면 수강신청에 대한 심층보도 기사도 의미 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신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민감한데 이에 대해 다뤄 학생들의 공감대에 발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수강신청 대란에 대한 원인도 정말 명쾌하게 잘 분석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시한 대처 방안이 대

해서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매체의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 2면 우측 하단에 취업박람회 관련 기사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와 보도가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면 언론의 순기능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9면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우리학교에는 다양한 여문계열 학과가 있지만 본인 전공이 아니면 다른 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기사를 통해 생소했던 폴란드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앞으로도 타과에 대한 심층보도를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12면은 이번에도 기대를 충족시켰다. 아프리카어를 전공하고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이정열 선배에 대한 내용을 통해 졸업생들의 진로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향후 보다 더 다양한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에 대한 인터뷰 기대해 본다.



빈 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1위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는 획기적인 복지공약을 내걸었다. 그것은 핵심 공약으로 여러 표심을 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것은 '기초연금으로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그 공약이 위태롭다. 정부에서는 애초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아닌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이에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기초연금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노인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노년 유니온,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등을 비롯한 5개 단체와 노인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30개 국가 중 무려 45.1%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멕시코의 28%보다도 훨씬 높다. 노인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전체 노인인구의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로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 45명은 가난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도 전체 인구 평균 소득의 59.7% 수준으로 OECD 30개국 중 26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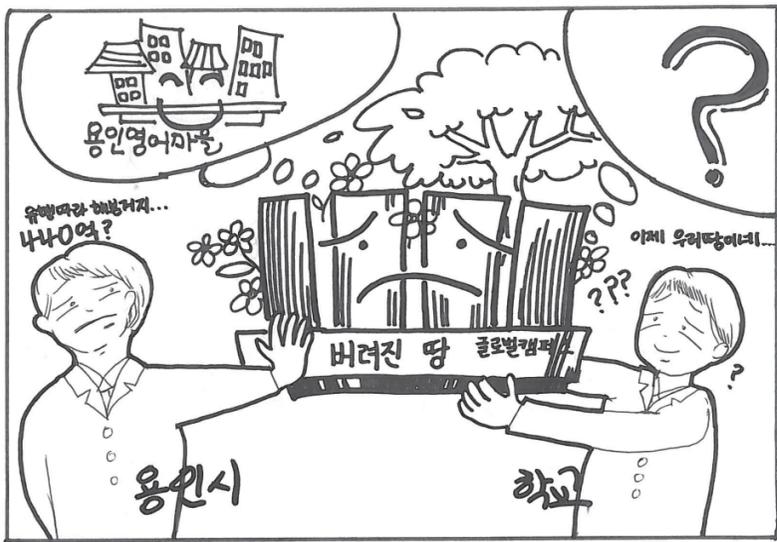
▲본지에서는 지난 해 전국 최초 총학생회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시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총학생회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한다. 대학에 실시할 정도라면 시민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의 공약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다면 실천에

대한 그 무게는 더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서울시 '무상보육'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경고한다. 기초연금의 재정분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무상보육대란' 때에는 결국 서울시에서 국채를 발행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속 시원한 해결책은 아니다. 기초연금도 국채발행만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듯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야금야금 한 걸음씩 후퇴하고 있다. 그러면 애초에 약속이 다른 것 아닌가. 유권자는 선택은 후보자의 공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무리한 공약을 내건 것인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앉아만 있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공약이행, 국정 운영을 촉구한다.

만 평



비둘기 칠판

비둘기칠판 보내는 곳
87kennedy0412@hufs.ac.kr

강진이에게

안녕 강진아. 나는 네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룸메이트 형 김준엽이야. 처음에는 같은 과 동기와 룸메이트가 돼서 걱정이 많았어.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생활 패턴이 다르면 어떡하나...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마음이 잘 맞아 우리 모두 편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물론 강진이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먹어서 덩달아 나도 살찌는 기분이지만... 그 정도야 뭐 애교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 요즘에 내가 물을 시작했지. 그 덕에 나란히 앉아 같이 키보드 두드리는 재미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 말대로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하지만 그 덕에 다른 동기들과 페이스북 스타도 돼보고 재밌는 경험 많이 했어 ㅋㅋㅋㅋ

강진아 이제 곧 시험인데 너와 나 먹고 자고 놀기 좋아하는 우리가 이 시련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음... 여태 한 달 동안 서로에게 보여준 행동으로는 힘들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다음에도 또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고 룸메이트도 하지 않겠니? 열심히 공부하고 힘냅시다. ㅋㅋㅋㅋ 내 룸메 짱 사랑함

김준엽 씀

글로벌배움터 태국어통번역학과 준엽이 형에게

안녕 준엽이 형! 아니, 우리 남자 과대표님. 나는 형의 사랑하는 기숙사 룸메이트 이강진이야.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 어색하게 존댓말하던게 잊고 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이렇게 지나가네. ㅎㅎ

또 개강하고 한 달이 후딱 지나갔네. 처음에는 형하고 같이 룸메이트가 됐다는 게 마냥 좋았어. 같이 신나게 놀고 공부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거든. 그런데!! 결국에는 풀하고 잠만 잔다는... ㅠㅠ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둘 다 볼 땐 놀고먹을 땐 먹고 공부할 땐 열심히 공부하는 지성인으로서 함께 잘 지내봅시다.

남은 2학기 기간 보람차고 재미있는 기숙사 생활을 바라며...

이강진 씀

ps.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은 1학기 때 찍은 건데 표정이 너무 웃겨서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ㅋㅋㅋㅋ



▲이강진 군(왼쪽)과 김준엽 군이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설

5명의 기자가 만드는 외대학보

외대학보 발행이 늦어지고 있다. 9월 9일 963호를 발행한 뒤,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964호를 내게 되었다. 이번 학기 외대학보의 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기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황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번호 외대학보는 편집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기자가 만들었다. 학업과 신문 제작을 병행하는 5명의 학생 기자들이 취재 현장을 뛰어다니며 12면의 신문을 만들었다. 이쯤 되면 학보가 정상 발행되지 않는다고 야단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문 제작을 위해 뛰어준 5명의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다.

80년대 학보는 대학 문화의 중심에 서있었다. 학생들은 학보를 통해 학내 소식을 접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유익한 생활 정보를 얻었다. 학보가 발행되는 날이면, 교내 우체국 앞에 학생들이 긴 줄을 서서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학보를 발송했고, 학생들 우편함은 다른 학교 친구들이 보내준 학보로 가득했으며, 우체국에서는 학보 발송 요금을 할인해 주기까지 했다. 당연히 학보사 기자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학보사 입사 경쟁률은 20:1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외대학보는 편집장 포함 5명의 기자가 지키고 있을 뿐이다. 대학생들이 학보에 관심이 없다 보니, 학보사 기자 선발에 지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막상 들어온 기자들도 신문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신문사를 나가는 일이 잦다. 월 10만원의 기자 수당과 등록금의 30%도 안 되는 장학금으로 버티기에는 학보사 기자일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

2013년 2학기 외대학보는 큰 위기에 처했다. 기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정된 모든 신문을 정상 발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외대학보에 남아있는 5명의 기자들은 최선을 다해 학보에 외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저학년 신입기자'만 뽑던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경력기자,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생까지 신문 제작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대학보 필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위기에 처한 외대학보를 살리는 데에 외대 구성원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양 배움터 통합의 시대에 걸맞은 모습 보여주길

우리학교는 2014년부터 통합돼 대형대학으로서 첫 출범한다. 하지만 근래 양 배움터를 보자니 갈등을 빚었던 2년 전 모습이 불현 듯 떠오르며 어딘가 모르게 곱씹는다. 이번 쟁점은 '캠퍼스 간 이중전공'이다. 이로 인한 배움터 간 갈등이 다시 한 번 치솟지는 않을까 괜한 노파심이 든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9월 7일 서울배움터 하반기 학생정기총회가 있었다. 이날 서울 총학생회는 "글로벌에서 요구된 본·분교 통합을 바탕으로 서울에 오겠다고 실시하는 이중전공 제도는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의 학제개편 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는 본·분교통합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합의한 이중전공 제한 내용을 어기고 이와 반대되는 학제개편 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90년대 후반 우리학교는 필사적인 재단투쟁을 벌였다. 교수, 학생 가리지 않았고 양 배움터가 합일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하여 끝내 '비리재단'을 몰아내고 지금의 공영재단을 세웠다. 이와 같은 하나 됨은 재단투쟁과 같이 역사적으로 남을 어렵고 큰일이 아니어도 미미하나 매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연초 등록금심사위원회의다. 여기서 양 배움터 총학생회는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 등 인상을 막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쳐 협상한다.

이번 '캠퍼스 간 이중전공'도 이와 다르지 않다. 궁극의 목표와 문제가 무엇인지, 진정한 협상 대상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제 괜한 '서로 흠집 내기'는 우리의 눈살만 찌푸려질 뿐이다. 허와 실을 분명히 가리고 논리로써 학생들을 이끌기 바란다. 더불어 2014년 첫 시작하는 통합의 시대에 진정 통합된 모습을 보여줄 학생대표자들을 기대한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 직원의 말풍선(7매) / 일사정지(사진) / 비둘기 칠판(3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신민지(통번역·태국어 11)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중섭

편집장 신민지 | 부장 이은결 오유진(객원) 조인우(객원)

정기자 임수진 최소영 허규범

조교 정진경 지윤주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newhufspress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 시절 프라하 IOC총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이다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포츠 외교관 윤강로를 만나다

지난 해 런던 올림픽에서 온 국민을 절명하게 만들었던 박태환 선수의 오심 사건을 기억하는가? 당시 남자 자유형 400m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던 박태환 선수가 부정 출발을 했다는 내용의 오심으로 예선 탈락의 위기를 맞았다. 이때 판정을 번복하고 박 선수가 결선에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스포츠 외교였다. 스포츠 외교라는 분야는 처음 들으면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것도 스포츠 외교 덕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조금 낯설지만 스포츠 경기의 승패뿐 아니라 국가 간 정치·외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포츠 외교. 지난 30년간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외교관으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의 매순간을 함께한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위원장을 만나보자.

Q1. 스포츠 외교라는 말이 낯선 독자들을 위해 스포츠 외교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또 현재 맡고 있는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스포츠 외교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람관계가 기본으로 작용하는, 국제적 스포츠경기의 장외거래와 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TV로 스포츠 뉴스를 보기도, 조깅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스포츠는 인류의 필수 요소 중 하나다. 그만큼 스포츠 외교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설립한 것이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으로 스포츠 외교의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한다. 그 외에도 스포츠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는 일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Q2. 2004년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나.

그 해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태영 선수가 오심으로 안타깝게 금메달을 뺏긴 일이 있었다. 오심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외교력이 튼튼해야 한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외교라는 것이 생소했고 그만큼 스포츠 외교력도 약했다. 인맥 관리도 잘하고 정보 정리도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또 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을 설립했다.

Q3. 어학을 전공 후 스포츠계로 진출한 것이 다소 독특하다. 재학 중 대한체육회에 특채 입사했는데 스포츠 외교가의 꿈은 대학 때부터 키웠다.

스포츠는 원래 좋아했다. 스포츠 외교와 인연을 맺은 결정적인 계기는 대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국제 핸드볼 코치 강습회가 있었는데 당시 교수님의 추천으로 국제심판을 대상으로 통역을 하게 된 일에서부터다. 그 후 1982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통역단장으로서 다른 학생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이어 공기총사격선수권대회, 제 8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박스컵 축구대회에서도 계속 통역을 하면서 스포츠 외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그 후 우리학교 동시통역대학원에서 영어-프랑스어과를 전공하다가 군대에 다녀와 복학 준비 중에 대한체육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으로 입사하게 됐다.

Q4. 그렇다면 스포츠 외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다.

무엇보다 어학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다. 영어를 전공했는데 재학 중에는 회화가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등하굣길에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영어로 말을 걸었다. 물론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온다. 그런데 막상 대화하다보면 회화와 발음은 생각보다 쉬웠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회화 수업 시간에 말이 많아졌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이 늘었고 자신감도 생겨서 영어회화클럽을 만들기도 하고 3학년 때부터는 출장통역도 다니게 됐다.

Q5. 이후 스포츠계에 입문해 어떤 일부터 시작했나? 적성에 잘 맞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통역을 정말 많이 했다. 외대에서 공부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 입사 당시 LA 올림픽을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과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양측을 상대로 일해야 했다. 그런데 IOC에서 쓰

는 영어는 미국과 달라 실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날 온 모든 서류를 일일이 복사해 출퇴근길에 무작정 통째로 외워버렸다. 그러다보니 언어적 차이는 물론 실무적인 내용도 차차 터득해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국제 스포츠 동향도 자연히 머리에 들어오게 됐다. 나도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일하다보니 스포츠 외교에서 점점 실력을 쌓게 된 것이다. 평소 외교 쪽에 관심도 있었던 데다 어학과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다. 사람 만나는 일도 좋아했으니 스포츠 외교라는 분야가 적성에 딱 맞는 셈이다.

Q6.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언제인가.

무엇보다도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순간을 꼽고 싶다. 1999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 109차 IOC 총회도 떠오른다. 일본 도쿄에서 1990년에 IOC 총회가 열렸는데 준비만 5년 정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그 준비를 7개월 만에 다 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부족한 예산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그야말로 마케팅을 해야 했던 때도 있었다.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뿌듯했던 일이다. 그 외에도 부산 명예시민이 됐을 때나 몽골 올림픽아카데미 제1호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을 때, 중국 국립인민대학교의 객좌교수로 강단에 서게 된 것도 잊지 못할 순간이다.

Q7. 30년 스포츠 외교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거나 안타까웠던 때는 언제였나.

항상 힘들다.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서 실패한 일도 많고, 내 주장을 내세우다보면 거만하다고 오해받을 때도 많다. 오해받을 때는 힘들지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나라와 스포츠에 대한 사랑도 그런 일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 됐다. 열심히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볼 때마다 힘을 얻기도 한다.

Q8.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끼기에 스포츠 외교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받아치기보다는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주는 마음 씀씀이가 필요하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히려 외국어를 아주 잘할 필요는 없다. 못해도 마음으로 대화하면 된다. 단어만 던져도 마음은 통하기 마련이다. 어학은 그런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Q9.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4대 스포츠대회 개최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이 더욱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스포츠 외교관이 각 종목별로, 분야별로 퍼져야 한다. 지금은 인재들이 많이 부족하다. 각 연맹과 단체들마다 스포츠 외교관들

이 배치돼 그들 나름의 인맥망을 만들어놓으면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이 많이 강해질 것이다. 이제 대회 유치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스포츠 외교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그랜드슬램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Q10. 보통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은 스포츠외교도 외교의 한 분야라는 것을 잘 모른다. 스포츠 외교관의 길을 추천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한다.

스포츠 외교의 장점은 전 세계 모든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스포츠 외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포츠 산업,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관련 법, 선수들 간의 네트워크, 기업 간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기 때문에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다. 스포츠 외교 관련 일을 꿈꾸더라도 막막할 수 있다. 어학을 열심히 하고 스포츠 동향에 꾸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포츠를 사랑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글 이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사진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윤강로 (영어 · 76)